

인도네시아국**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**(2013년 9월 3일)
(자카르타 aT)

구분	핵심 내용
통관	<input type="checkbox"/> “소고기, 고추, 붉은 양파 등 수입쿼터 폐지 및 가격기준 설정”

항목	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추, 붉은 양파 등 원예작물과 소고기의 수입쿼터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함. ○ 루피아 환율 급등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자국 농축산물 자급자족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급한 물가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. ○ “소고기, 고추, 붉은 양파 등이 적정가격에 판매될 때 이 수입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것임” “정부가 소고기의 적정 소매가격을 kg당 76,000Rp 로 정했고 나머지는 논의 중. 식품류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” -기따 위르야완 무역장관- ○ 최근 소고기 가격은 kg당 10만 루피아 이상 올랐음. 소고기, 대두, 붉은 양파, 고추 등 식품류는 수급불균형이 종종 발생해 물가상승의 주범. ○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과 8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각각 8.61%, 8.79%로 급등, 중앙은행(BI)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9.0~9.8%에 달할 것이라 전망.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사점 / 대처 방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내용에 대해 수출업체 안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전파 <input type="checkbox"/> 발표 일자/ 출처 : 9월 3일 / JAKARTA POST, GLOBE